

기획

문화수도 위한 긴급제안 —————
광주 도심 리모델링

6지속가능한 건축물

역사가 담긴 건물은 헐지 말라



조성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사업부
사무장

도시의 과거는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를 잊고 현대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개발은 자칫 그 도시가 갖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금남로 구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금남로 공원은 시민휴식 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와 건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무시한 채 건물을 없애고 공원으로만 조성함에 따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기묘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아쉬움을 남긴 사례다.

적어도 광주 역사를 가진 문화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독자적인 문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주요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도심을 살리기 위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금남로 및 충장로 거리 활성화 방안 등 정책들이 수립되고 일부는 시행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전통의 기반 위에 성장하는 도시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도심의 역사를 파괴하는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의 도시구조나 일상성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구 도청을 보존하고 건립부지의 공원화를 주요개념으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역사적 환경 보전을 통한 개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금남로, 충장로, 광주공원, 사직공원과 전일빌딩, 광주우체국, 학생회관, 광주극장 등 도시의 장소와 건물들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현상을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겪었던 장소로서 우리가 보존,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광주의 문화유산이다.

역사적 장소·건물은 그 자체가 문화

이들 건물들을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명목화하고 테마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추억들은 사진을 통해 재생되듯이 광주의 도심은 곳곳에 남겨지는 문화의 흔적을 통해 문화수도로써 기억되고 재생활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미학이자 140년 된 한만도시인 요코하마에는 메이지시대의 다이쇼 시대의 세관창고였던 '아카렌카 창고'가 있다. 붉은 건축물이 특징인 이 건물은 외관 변화없이 내부의 홀, 전시관, 레스토랑, 육외 조경, 콘서트시설을 보강하면서 문화시설로 재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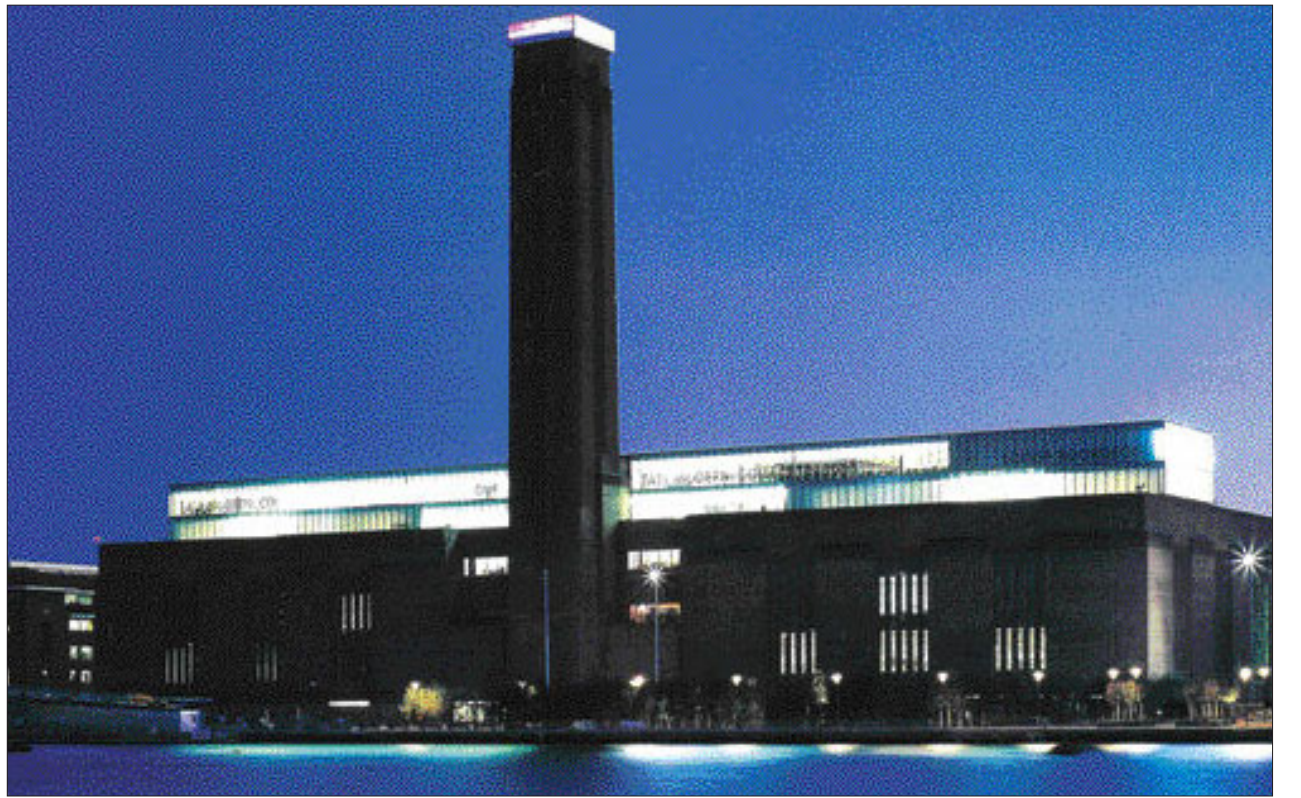
특히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보존을 위해 신속보다도 더 많은 공사비용을 지불했지만, 시내중심가의 문화시설이나 소공연장, 백화점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북쪽에 있는 '테이트 모던갤러리'도 지난 1981년 유가파동으로 문을 닫은 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 건물은 전통과 역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이 곳은 지난 2000년 개관 이후 현재 4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영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발맞춰 광주도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 의미를 잃어가는 장소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때가 됐다.

충장로 광주우체국을 보자. 지난 1897년 12월 개국한 이래 광주우체국은 광주시민들에게 오랜 동안 '만남의 장소'로서 각광받으면서 '우다방'이란 애칭을 얻었다. 현재 광주의 역사와 삶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우체국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장소와 건물이 갖는 역사와 문화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1층 소규모 면적을 간이 우체국으로 살려두고 나머지 층에 충장로 거리의



문 앞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재탄생된 영국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야경(위). 리모델링 전(아래 왼쪽)과 리모델링 후 내부 전경.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전시관과 박물관을 만들고 소공연장을 조성해 갖가지 문화공연을 비롯한 집회장소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전당'은 지속가능 개발의 모델

중앙초등학교도 문화유산 보존 방식을 통해 도심재생의 기폭제로 재생될 수 있다. 중앙초등학교의 외관은 역사문화보존의 원칙 아래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시립역사박물관, 교육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상에는 광주읍성의 해자(壕子)와 동계천의 부분적인 복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고, 야외음악당, 야외전시장을 조성해 예술의 거리와 연계할 때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장 지하에는 도심에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사 사례로는 '서울예술극장'을 들 수 있다. 서울예술극장은 해방 이후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서울 '명동극장'복원해 올 말 재탄생 한다. 문화예술인들은 옛 국립극장 뒤쪽에 백안인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구 국립극장 뒤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재개관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건물을 매입하고 복원예산 600여원을 확보, 외관을 보존하고 내부를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 또한 도심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심재생의 선진 사례를 살펴볼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성과를 이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낡고 오래된 건물과 시설을 무조건 철거하고 새것으로 바꾸어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고 재생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shcho004@hanmail.net)



옛 '명동극장'을 재단장해 올해 말 오픈하게 될 서울예술극장 조감도.

35년 전통의 복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두충 오가피 식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수험생, 직장인, 주부, 운동선수 부모님과 친지에게 좋은 선물
※ 두충오가피 판매가 - 30팩 : 5만원 / 60팩 : 10만원
장생식품 TEL.(062)385-3303, 362-69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35번지

대인동산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물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최대한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순환권 신라제일상업 대로 480평 당 200만 원(전세권 포함)

믿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상가 임대 및 분양
*1층 52평 60평 85평(우대상, 2층매장) 임대가 평균 300~400만원

동부부동산(주)
1. 광산구 도현동(매매) C1 12-1의 2필지
*부동산 800평 당 도로변 300m도로

토우드공인중개사
토지
*신원동 800평 당 도로변 300m도로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 현대자동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저수지(남서) 바로 옆 210~360평 3층빌딩 4필지 매각

정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상무지구 시청앞 한국은행후면
062)233-2222 www.homecon.co.kr